

다이어트제품 과장광고는 벌금으로...

FTC, 미국기업 2곳에 벌금 37만달러 부과 ... 유해물질 함유사실 은폐

다이어트 제품 등을 과장광고했던 미국기업 2곳이 적발돼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해 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 (FTC)에 37만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다.

FTC는 또 캘리포니아주와 캐나다에서 근거 없는 광고를 한 다이어트제품과 관절염 치료제 제조기업도 제소할 예정이다.

하워드 빌즈 FTC 소비자보호국장은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으면서 체중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광고는 거짓이라며 적발된 2개 기업은 식이요법이나 운동 없이도 단기간에 상당한 체중을 줄일 수 있다고 광고하는가 하면 인체에 자극적인 식물성분인 에페드린(麻黃)을 함유하고 있으면서도 안전한 것처럼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적발된 기업 중 애리조나 스코츠데일에 본사를 둔 노스아메리카 헬스 래버러터 리사는 미국 전역에 우편판매를 통해 <베리트림플러스(Berry Trim Plus)>라는 상표의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했다.

특히, 광고에서 “8주에 35kg을 감량한 교사, 100만명 이상이 수백만파운드를 뺄 수 있는 방법, 칼로리 계산은 필요 없다, 배고픔은 없다” 등의 과장문구를 사용하며 3500만달러 상당을 판매했으나 결국 19만5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플로리다 팜 하버 소재 USA 약품판매사는 체중감량제 3가지와 남성발기부전 치료제를 우편물과 신문전단을 통해 광고하면서 천식치료에 사용돼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에페드린 성분을 포함시키고도 안전하다고 광고하며 9200만달러 상당을 팔았다가 17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Chemical Journal 2003/07/08>